

장로리더십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는 사람들

- 한동대의 비전 -

(단.12:4)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빨리 왕래하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가 되었고 정보와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진입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뛰어 넘어서 빨리 왕래하게 되는 것은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다." (마. 24:14) 복음전파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는 구어적(Verbal Communication) 선교활동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는 통신기술의 혁명적인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복음전도 (Nonverbal communication) 방법이 중요한 선교수단이 될 것이다.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선교의 전달방식과 매체는 달라질 수 있다.

1976년 프란시스 웨이퍼는 21세기를 예측하면서 "다가오는 시대는 진리가 없는 교육을 하게 되고 의미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며 목적의식 없이 돈만 모으려고 하며 죄의식 없이 살인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였다.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허물어지고 붕괴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신다. 특히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역경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 느헤미야는 훼파되었던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벽을 중수 한다는 비전을 가졌다. 지도자에 관한 많은 책을 쓴 피터 드러크는 지도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음 것을 먼저"(First Things First)한다고 하였다. 즉 유능한 지도자는 처음 것을 먼저, 한번에 하나씩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성벽재건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느헤미야에게 최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은 "기도"였다.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고 말했으며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해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자신을 낮추고 전력하는 기도의 사람' 바로 무릎으로 일한 지도자였다.

진실한 지도자는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만하지 않은 사람이다.

지도자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살필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응답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 기다렸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웠고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그 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핵심한 반대가 일어나도 기도하며 그 계획을 관철시켰다. 즉 훼파된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벽을 중수 한다는 목표

를 가졌지만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했다. 성벽재건의 일이 시작되었을 때 근방의 총독들의 방해와 이스라엘 내부의 반대를 겪게 되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그의 성벽재건의 역사를 조롱하고 무력을 사용할 듯 위협하였으며, 모함하고 못 된 소문을 퍼트리고 협박함으로써 중단시키고자 했다. 또한 이스라엘 동족들 중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함으로써 그의 역사를 망칠 뻔한 내우외환도 겪게 되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의 주위에 뭉게뭉게 생겨난 반대라는 구름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용기를 기지고 앞서서 일해 나갔다. 그의 용기는 보다 높은 차원의 성취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기도와 용기로 무장하고 여러 장애물들을 기회로 바꾸었으며 외부의 시련들을 승리로 바꾸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이라는 절정에 오르는 과정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하다가, 일단 성공에 도달하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성공을 자기 혼자서 이루어 낸 업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여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성벽재건을 52일 만에 완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된다. 느헤미야는 성벽재건을 완공 후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앎이더라. (느.6:16)" 라고 하며 자신이 이룬 일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실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너무나 대조되는 사건이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에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단 4:30) 라고 말하여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더욱 형통하였으나 느부갓네살은 심판을 받아 성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무너진 성벽의 재건은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의해 성취되었지만 느헤미야 혼자 이룩한 것은 물론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과업을 달성하고자 열열히 수고하였고 헌신하였으며 놀라운 열정으로 참여하였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탁월한 조직력으로서 기획하였으며 목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탁월한 경영자이기도 하였다.

느헤미야에서 동참하였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차례차례로 3장에서 언급하였고 여기저기에 어떻게 수고하였는가를 일일이 기록하였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3장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있다. 많은 열거된 이름 중에서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돌려 각 사람들이 어느 부분을 맡아 이루었는가를 일일이 열거하였다. 그러나 일이 마쳤을 때는 궁극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고 사용하신다.

이 시대에 훼파된 성벽을 쌓는 마음으로! 학원사역의 중요성

***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 :**

- (1) 인성교육의 중요성
: 정직성의 위기

(2) 진화론의 영향

: 가치관의 혼돈, 물질만능 사상, 과학주의, 쾌락주의, 성도덕의 타락

한동대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로마서 12:1) 비전을 가지고 1995년 개교하였습니다.

교육이 바뀌면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미래가 변화됩니다. 한동대학교는 도덕과 윤리가 훼손되어가는 이 시대에 새로운 전인적 교육으로 나라와 세계를 지키는 하나님의 정병들을 배출할 것입니다. 무신론적 세상 학문에 대항하는 창조론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대학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탁월한 지식교육과 기독교 신앙교육, 진실하고 정직하며 세계와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새로운 지도자상을 구현합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동인의 무대는 전세계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제적 대학 (Global University)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지도자가 나오는 꿈을 준비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dong.edu>